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3, pp.119-124, August 31,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9.5.3.119
JCCT 2018-8-15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

Morl Distress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이소영*

Lee So-you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 지역 간호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상자의 학년, 간호학과 선택 여부에 따라 도덕적 고뇌의 차이를 보였고, 윤리적 가치관은 나이, 학년, 간호학과 선택 여부, 교우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을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도덕적 고뇌, 윤리적 가치관

Abstract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distress and ethical values among nursing student. The participants were 150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1.0 program. In the results, moral distress and ethical valu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oral distress according to grade, select the reason for department and ethical values according to age, grade, select the reason, one`s associate for department. Moral di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thical values. The findings suggest that programs aimed at decreasing moral distress and ethical values intention should be developed. Furthermore,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variables that influence moral distress.

Key words : nursing student`, moral distress, ethical values

Ⅰ. 서론

생명과학의 발전은 인간 생명 연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인간 삶의 가치를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 이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 간호사는 다양한 윤리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2].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많은 책임을 지면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간호사에게 직업적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3], 도덕적 의사 결정을 위한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 간호사의 도덕적 의사 결정은 윤리적 가치관(Ethical Values)에 영향을 받으며, 윤리적인 의사 결정의 기회 속에서 윤리·도덕적인 올바른 판단을 위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4]. 그러나 인간애를 기본으로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며 간호사들은

*정회원,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접수일: 2019년 5월 17일, 수정완료일: 2019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6일

Received: May 17, 2019 / Revised: June 18, 2019
Accepted: July 06, 2019
*Corresponding Author: 108959@naver.com
Dept. of Nursing, Kyungwoon Univ, Korea

윤리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윤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힘들게 된다[4]. 간호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 속에서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를 경험하며 울음, 땀 흘림, 두통 등의 신체적 반응과 소진, 죄책감, 분노 등의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5]. 이러한 경험들은 부정적인 신체적·정서적 반응들로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는 개인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제약으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경험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반응을 의미한다[6]. 이러한 경험은 간호업무의 불만족과 환자 간호의 질적인 저하도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7,8].

미래의 간호를 책임지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 실습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윤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9]. 현재 임상 실습은 과거와는 다르게 수행보다는 관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은 학교에서와는 다른 임상 현장 속에서 갈등과 딜레마를 경험하며 학생의 신분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도덕적 고뇌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10]. 특히, 정신과 실습에서 정신과 환자를 다루는 현장 속에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함에 따라 정신간호와 추후 정신과 지망까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다[11].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신규간호사가 되는 경우 윤리적 가치관이 흔들려 임상 속에서의 명확한 가치관 성립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간호를 책임질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생을 무작위추출법을 통하여 선정한 후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 중 자발적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하여 서면 동의 후 얻어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이었다. 표본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90%로 하여 최소 표본 수는 135명이었다. 총 150부를 배부하여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4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윤리적 가치관(Ethical Values)

윤리적 가치관(Ethical Values)은 간호사로서 지켜야 하는 도리 혹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실천되는 행위에 관한 개념[12]이다. 본 연구에서는 Lee[4]가 개발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Choi[1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간 생명 영역(8문항), 업무 관계 영역(5문항), 대상자 관계 영역(5문항), 협동자 간 관계 영역(4문항) 총 20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반대' 1점에서 '찬성'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6이었다.

2)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는 윤리적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6]. 본 연구에서는 Yoo[14]이 개발한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측정 도구와 Kim과 Choi[15]의 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한 상황적 영역(30문항), 인지적 영역(18문항), 정서적 영역(13문항)으로 총 6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타당도와 문항 검증을 위해 간호학 교수 1인과 정신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들이 평가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고뇌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4이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도덕적 고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윤리적 가치관, 도덕적 고뇌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s test를 사용하

였다. 대상자의 영역별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0.8세이며, 여자가 121명(83.4%), 종교는 기독교 57명(39.3%), 학년은 2학년과 4학년이 각 75명(51.7%)과 70명(48.3%)이었다. 건강상태는 '좋음'이 87명(60%), 간호학과 선택 '스스로' 69명(46.9%), 교우 관계는 '좋음'과 '매우 좋음'이 각 60명씩(41.4%)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5)

Variables	categories	n	%
Age	19-20	25	17.3.
	21-22	80	55.2
	23≤	40	27.5
Gender	Male	24	16.6
	Female	121	83.4
Religion	Catholic	23	15.9
	Protestantism	57	39.3
	Busshism	35	24.1
	Others	30	20.7
Grade	2	75	51.7
	4	70	48.3
Health State	Very God	25	17.3
	Good	87	60
	Moderate	28	19.3
	Bed	5	3.4
Select the reason for department	High School Grades	12	8.3
	Aptitudes and interests oneself	68	46.9
	The advice of Others	40	27.6
	Employment	15	20.3
	Etc.	10	6.0
One's associate	Very Good	60	41.4
	Good	60	41.4
	Moderate	25	17.2

2.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 정도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윤리적 가치관은 평균 3.20± 0.71점, 도덕적 고뇌는 평균 3.03± 0.56점이었다.

표 2.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 정도
Table 2. Degree of Moral Distress, Ethical Values (n=145)

Variables	M±SD	Min	Max
Ethical Values	3.20± 0.71	1.40	5
Moral Distress	3.03± 0.56	1.57	4.3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 정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윤리적 가치관에서는 나이(t=1.41, p= .033), 학년(t=-2.22, p= .002), 간호학의 선택(t= .791, p= .005), 교우 관계(t= .885, p= .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도덕적 고뇌에서는 학년(t=-3.27, p= .001), 간호학의 선택(t=1.24, p= .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 정도의 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은 도덕적 고뇌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65, p<0.01). 윤리적 가치관 하부영역 중 대상자와 관계와 도덕적 고뇌의 하부영역 간에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표 4.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 정도의 관계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Values and Moral Distress (n=145)

	EV	H	SR	C	N	MD	E	S	R
EV	1								
H	.272**	1							
SR.	.649**	.293**	1						
C	.714**	.301**	.242**	1					
N	.579**	.242**	.313**	.223**	1				
MD	.065**	.194*	.107*	.226**	.114*	1			
E	.062*	.194*	.016 (.844)	.028*	.116**	.100**	1		
S	.185*	.215**	.065 (.431)	.058*	.145*	.210*	.218**	1	
R	.276**	.315**	.064 (.441)	.160**	.124*	.290**	.273**	.144*	1

EV:Ethical Values H:Human Life Section SR:Subject relationship Section C:Copartership Section N:Nurse Practice Section
MD:Moral Distress E; Emotional S:Siuational R:Recognitional

표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Ethical Values, Moral Di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 (n=145)

Variables	categories	Ethical Values		Moral Distress	
		M±SD	t or F(p)	M±SD	t or F(p)
Age	19-20	3.24± 0.41	1.41 (0.033)	3.20± 0.44	1.43 (0.227)
	21-22	3.79± 0.67		3.70± 0.63	
	23≤	3.90± 0.60		3.90± 0.62	
Gender	Male	3.84± 0.59	-.198 (0.844)	2.98± 0.54	-.516 (0.606)
	Female	3.87± 0.62		3.98± 0.61	
Religion	Catholic	3.82± 0.63	0.659 (0.579)	3.01± 0.55	2.49 (0.063)
	Protestantism	3.84± 0.57		3.98± 0.59	
	Busshism	3.89± 0.66		3.03± 0.62	
	Others	3.11± 0.56		2.46± 0.70	
Grade	2	3.77± 0.58	-2.22 (0.002)	2.87± 0.56	-3.27 (0.001)
	4	3.99± 0.64		3.56± 0.59	
Health State	Very God	3.84± 0.62	0.922 (0.400)	3.05± 0.61	3.13 (0.102)
	Good	3.85± 0.61		3.96± 0.55	
	Moderate	3.11± 0.57		3.05± 0.54	
	Bed	3.01± 0.54		2.06± 0.42	
Select the reason for department	High School Grades	3.00± 0.68	0.791 (0.005)	3.01± 0.57	1.24 (0.006)
	Aptitudes and interests oneself	3.83±0.49		3.98± 0.54	
	The advice of Others	3.76± 0.52		3.80± 0.51	
	Employment	2.83± 0.66		2.03± 0.62	
	Etc.	3.75± 0.64		3.01± 0.63	
One's associate	Very Good	3.16± 0.63	0.885 (0.004)	3.27± 0.74	1.797 (0.151)
	Good	3.80± 0.53		3.88± 0.52	
	Moderate	3.92± 0.71		3.00± 0.52	
	Bed	3.82± 0.57		2.14± 0.71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고뇌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3점, 윤리적 가치관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0점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고뇌는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질적 연구만이 존재하기에 비교 대상은 없었으나, Ma[7]의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94점으로,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oo[13]의 연구에서 3.02점, Han[16]의 연구에서 3.11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자신이 간호대학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그대로 관찰만 해야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경우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15]. Lee 등[17]은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보다는 생명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 간호대학생은 스스로 인간 생명을 다루고 있는 학문임을 인지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되며 혼란스러워 하는것으로 나타났다[18,19]. 이는 임상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판단하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가치관 혼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간호대학생들은 예비의료인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이 흔들려 도덕적 고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임상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에게 느끼는 도덕과 윤리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그러나 윤리적 가치관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임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의 흔들림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곧 환자 간호의 질적인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로 도덕적 고뇌는 정서적 영역, 상황적 영역, 인지적 영역의 하부영역으로 되었고, 윤리적 가치관은 인간 생명 영역, 대상자 관계영역, 협동자 간 영역, 업무 관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가치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추후 간호대학생이 도덕적 고뇌가 나타나는 신체적·정서적 반응도 함께 연구되어 이들이 학과만족도와 흥미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생들로만 국한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반복·확대 연구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강의 중심에서 벗어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교과목으로 개발·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K.S. Hwang, Ethics of life, Nursing Social Care Education Lecture. pp. 7-26, 1988.
[2] N.Hayane, S.Moore, M. Osborne, and S. Ohen, “Nursing ethics: A turning point,” Nursing Frum, Vol. 25, No. 4, pp. 10-30, 1999.
[3] E.Y. Choi,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4, No. 1, pp. 153-163, February 2018.
Doi.org/10.17703/JCCT.2018.4.1.153
[4] Y.S.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JKAN), Vol. 20, No. 2, pp. 249-270, Aguest 1990.
[5] A.B. Margart, and K.B.Alvita, Issue in contemporary nursing, Stamford, Cengage Learning, 2013.
[6] A. Jameton, Nursing Practice: the ethical issu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4.
[7] M.Y. Ma, Moral distress and Depression of Clinical Nurses. [Ma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8.
[8] M.C.Schluter, S.Winch, and K. Holzhauzer, “Nurses moral sensitivity and hospital ethical climate: A literature review,” Nurs Ethics, Vol. 15, No. 3, pp. 304-321, 2008.
[9] Camerin, Schaffer, and Park, “Nursing student‘ experience of ethical problems and use of ethical decision making models,” Nursing Ethics, Vol. 8, No. 5, pp. 432-447, 2001.
[10] H.H. Gu, M.J.Kim, S.K. Moon, H. J. Park, H.K. Lee, H. J. Yim, J.Y. Hu, M.S.Kim, “A Study on the Ethical Valu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Health & Nursing, Vol. 36, pp. 84-107, 2002.
[11] Wojtowize, Hagen, and Daalen, “No place to turn: Nursing student experiences of moral distress in mental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Vol. 23, No. 3, pp. 257-264, 2014.
[12] Y.S. Ha, Introduction to Nursing. Seoul : Shinkwang, 1988.
[13] Y.R. Choi, A Comparison of the Nursing Ethical Values between Clinical Nurses and Nursing Students, [Ma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1.
[14] M.S. Yoo, The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ool for moral distress in nurses, [Doctoral degree], Yonsei University, 2003.
[15] C.H. Kim, and H.S. Choi,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Moral Distres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 355-365, 2016.
[16] S.S. Han, “The Moral Distress Experienced by Hospital Nurses,”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 6, No. 2, pp. 31-47, 2016.
[17] K.J. Lee, E. Lee, and Y.S. Park, “Comparison on Influencing Fa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 377-388, Dec 2016.
Doi.org/10.14400/JDC.2016.14.12.377
[18] G.S. Jeong, “The Effect of Gender, Eth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Students in one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672-5681, Nove 2013.
Doi.org/10.5762/KAIS.2013.14.11.5672
[19] H.Y.AHn, B.S.Cho, S.H.Choi, W. Choi, and Y.M.Go, “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ed Soc Nurs Edu. ,Vol. 14, No. 1, pp. 98-10, 2018.

[20] A.S. Burston, and A.G. Tuckett, "Moral distress in nursing: Contributing factors, outcomes and interentions," Nursing Eyhics, Vol. 20, No. 3, pp. 213-324, 2013.